

순천시 원도심 ‘문화광장’ 재탄생

7~8일 ‘문화콘텐츠 대축제’ 개최
주말광장·원즈순천·알고잇슈 연계
거리 노래방·캐릭터 팝업 스토어도

순천시는 오는 7~8일 시민로와 남문터광장 등 원도심 일원에서 ‘문화콘텐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축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인 ‘주말의 광장’, 콘텐츠 축제 ‘원즈순천’, 정책 축제 ‘알고잇슈’ 등과 연계해 원도심 전역을 새로운 문화광장으로 재탄생한다.

‘주말의 광장’은 차량이 다니던 도로를 콘텐츠로 채워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심 해방로드다. 원도심에서 처음 선보이며 연중 도심 권역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도심 시민로 일원에서는 유명 크리에이터 창현의 거리노래방과 춤추는 곰돌이 랜덤댄스,

야외 레이저태그, 인기 캐릭터 팝업스토어, 창작마켓, 캐리커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같은 기간 남문터광장 일원에서는 콘텐츠 축제 ‘원즈순천’과 정책 축제 ‘알고잇슈’가 함께 열린다.

‘원즈순천’은 원도심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순천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다. 순천시 대표 캐릭터인 ‘루마·똥이’ 팝업매장, ‘신비아파트’ 싱어롱쇼, ‘벨리크’ 편 위킹, 애니메이션 ‘퇴마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알고잇슈’는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부스를 운영해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주재관에서는 순천의 도시 위상 변화와 미래 비전을 소개한다.

육천변에는 인기 캐릭터 ‘몰랑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도심 속 캠퍼형 휴식공간인 육천 포차도 함께 운영된다. 원도심 골목 상권과 연계한 배달존도 운영돼 지역 음식과 상점 홍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문화의 거리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창작자가 참여하는 로컬 플라마켓인 ‘금꽃마켓’과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경연 대회인 ‘청소년예술제’가 열린다.

어두웠던 도심의 저녁은 이틀간 메인 공연으로 밝게 채워진다. 7일은 인기 가수 에일리가 참여하는 원즈쇼가, 8일은 인기 밴드 데이브레이크를 필두로 엔딩로드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시민로 일원(글로벌웹툰센터~K2)과 남문터광장 옆 육천길 일부 구간의 차량이 통제된다.

노과규 순천시장은 “원도심 전체를 문화 콘텐츠로 채우고, 나아가 젊은이들과 기업이 몰려드는 살아있는 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곡성군이 최근 군청 소통마루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심의위

곡성군은 최근 군청 소통마루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축협 관계자 및 농업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 2025년도 농축산물 최저가격 결정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관내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의 80% 이하로 하락했을 때 도매시장가격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쌀, 고추, 옥수수, 딸기, 멜론, 토란, 잎들깨, 매실, 사과, 배, 감, 한우 등 12개 품목이다.

올해는 한우 수소를 지원 품목으로 결정, 향후 농가의 신청을 받아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 확대 계획에 따라 신소득 작목인

블루베리를 지원 품목에 추가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올해 고시된 최저가격(1kg 기준, 한우는 지역단가)은 △쌀 2,377원 △건고추 1만7,369원, △풋고추 4,141원 △옥수수 1,340원 △딸기 9,106원 △멜론 2,988원 △토란 2,198원 △잎들깨 6,840원 △매실 2,007원 △사과 3,074원 △배 2,930원 △감 2,423원 △한우(비육우/암) 1만7,477원 △한우(비육우/수) 1만7,444원 △한우(비육우/거세) 1만8,489원이다.

곡성=류성 기자

여수시체육회, 지역체육 100년사 편찬 착수

체육계 원로 등 편찬위원 구성

여수시체육회는 지역 체육의 100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체육사 편찬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여수시체육회는 최근 체육사 편찬위원회 출범식과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체육사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

편찬위원회는 체육계 원로, 종목단체 관계자, 체육행정 전문가, 언론인, 지역사 연구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조일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편찬 방향 자료와 역사적 사실 검토, 자료 수집 협조 등을 수행하며 체계적인 기록 정리에 힘쓸 예정이다.

여수시체육회는 향후 검토 및 집필 과정을 거쳐 2026년 발간을 목표로 체육사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편찬사업은 1994년 발간된 기존 여수시 체육사 내용을 재정비한다. 한자로 작성된 기존 체육사 내용을 현대적인 문체로 재구성하고, 1920~1960년대 초기 체육 형성과 여수 통합 전후의 시기의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1994년 체육사 발간 이후 30여년간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발전 과정, 지역체육의 주요 사건과 인물, 종목별 활동성과를 기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목단체와의 간담회, 원로 체육인과의 인터뷰, 각종 기록물 및 기증 자료 확보에



여수시체육회가 최근 체육사 편찬위원회 출범식과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체육사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 여수시체육회 제공

나선다. 개인의 스토리와 생생한 현장 증언을 기술 기록으로 남겨, 연표 중심의 역사서를 넘어서 서사적 깊이와 완성도를 갖춘 여수 체육사를 집필할 예정이다.

여수시체육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검토 과정을 운영한다.

전조일 편찬위원장장은 “여수 체육 100년의 흐름을 정리해, 완성도 높은 체육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중한 기록이 후대

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위원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정식 여수시체육회장은 “이번 체육사 편찬은 여수 체육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새기는 역사적인 작업이다”며 “특히 체육인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이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는 만큼, 지역 체육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장흥군, 독거노인 의료급여 특화사업 추진

장흥군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70세 이상 혼자 살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의료급여 특화사업을 실시한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의료급여 특화사업은 독거노인의 약물복용 여부 확인과 건강검진 독려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대상자의 건강상태, 식사 여부 등 안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 등

을 돕는다. 전화, 방문 등 안부확인 역할도 수행한다. 장흥군은 의료급여 특화사업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지원에 힘을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독거 노인들의 고립을 예방하는 등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통합 돌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광양시 ‘구봉산 숲속야영장’ 7일 문 연다

광양 구봉산 숲속야영장이 7일 문을 연다. 광양시는 오는 7일 오후 광양시 황길동 산45-11번지 일원에서 구봉산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봉산 숲속야영장은 2021년 산림청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됐다. 어린이테마파크 내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목표로 국·도비 19억원 등 총 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야영데크 28면과 숲속의집 5동 등 총 33면에서 동시 야영이 가능하며, 화장실, 샤워장, 취사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갖췄다.

개장식 이후에는 주말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30일 정식 개장한다.

이용 요금은 야영장 구역에 따라 2만5,000원에서 5만원까지이며, 예약은 6월 중순부터 인터넷 예약사이트 ‘캠핏’에서 가능하다.

광양시는 구봉산 숲속야영장이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광양 소재전문화관, 상상놀이터와 함께 구봉산을 중심으로 한 시민 휴식공간이자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김현근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담양축협여성회, 장학회에 100만원 전달

담양축협여성회가 대나무축제 기간 중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100만원을 (재)담양장학회에 기탁했다.

담양축협여성회는 축제 기간 관광객들에게 담양 한우의 품질을 알리기 위해 셀프 식당과 무료 시식 코너를 운영하며 한우 소비 촉진에 힘썼다.

담양축협여성회는 2022년 설립된 여성축산업인 단체로, 21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매년 장학사업과 김장김치 전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임수정 담양축협여성회장은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지역 인재육성 위해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순천경찰, 학교폭력 예방 등교맞이 캠페인

순천경찰서는 4일 순천삼산중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비도박과 허위영상물, 학교폭력 근절 및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교맞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순천경찰서, 순천교육지원청, 교사, 학생회, 해룡자율방범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에게 허위영상물과 학교폭력 근절 및 자전거 교통사고 등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



보성소방, 119청소년단 발대식

보성소방서는 최근 119청소년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119청소년단은 미래소방관 체험, 안전캠페인, 생활안전 및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소방 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성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발대식은 벌교초 시작으로 보성초, 벌교중, 여당중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을 방문해 진행됐다. 발대식은 △119청소년단 지도교사 위촉 △119청소년단 선서 및 입단식 △임명장 수여 △화재안전 및 응급처치 소방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보성=백종두 기자